

Coop Himmelblau 의 ‘열린 공간’ 개념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ncept of ‘Open space’ in Coop Himmelblau’s

윤재은* / Yoon, Jae-Eun

이규홍**/ Lee, kyu-Hong

Abstract

A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rehend a concept of ‘Open Space’, realization of a deconstruction, presented in his works, based on a deconstruction and surrealism Coop Himmelblau’s philosophical contemplation and to look into how this concept is interpreted in spaces. A concept of ‘Open Space’ is functioned as not a singular meaning but a multiple meaning accompanied with other formative ingredient and contemplation, scientific paradigm and a relation with a surroundings. The concept of ‘Open Space’ in their architectural space is applied. First, the space openness that represents to the extreme a concept ‘Open Space’, as a 3D designing ways that demolishes a structure and outgrows an existing thinking pattern, represents multiple grade spaces and an anti-gravity space. In a material, using glass and iron provides a spacial transparency and through this, visibly liberal sense that an interior and exterior is felt as an unification. Second, an non-expressive box pattern repulses to a spatial rank nature, outgrowing an uniform geometrical system, through demolishing a geometrical system, an edge and fold pattern. This is, as an anti-gravity, dynamic a typical structure, outgrowing an orthogonal system, interpreted as a composite meaning without division in spatial area. Third, the collage is used to represent a complexity and pluralism in representing ‘Open space’. The collage that forms a image through combining a fragmentary elements into being a space change, composite constitution and spatial amusement. Thus, It is worthwhile to study how the collage that forms a diverse shape will be developed making what impact as an age and surroundings changed. As we contemplate in former part, Coop Himmelblau has deployed ‘deconstruction beyond deconstruction’ realm as just their midterm concept in their works like the words ‘The architecture must climb’, the deconstructive architect. A studying for their works reflecting the ‘Open Space’ concept based on deconstruction must be lasted and this enables us to comprehend space concept containing an architecture and interior design.

키워드 : 열린 공간, Coop Himmelblau, 해체주의, 초현실주의, 비정형성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및 의의

모더니즘 이후 건축 및 실내공간에 대한 획일성을 탈퇴하려는 경향이 60년대 이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오늘날 탈 획일화 및 다변화를 추구하는 포스트모더니즘, 포스트구조주의, 포스트 아방가르드 등의 다양한 사상으로 새로운 공간개념들이 등장하고 있다. 현시점에서 현대건축의 흐름에 중요한 사상적 사유가 되고 있는 해체주의를 탐구하는 것은 중

분한 연구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철학과 문학에서 시작한 해체주의 사고를 바탕으로 ‘해체주의 이상의 해체주의’¹⁾ 개념을 추구하는 건축가 콥힘멜브라우(Coop Himmelblau)의 ‘열린 공간’(Open Space) 개념은 현시대의 건축을 표현하는 중요한 관점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그들의 작품들을 파악하여 그들이 추구하는 ‘열린 공간’ 개념이 어떻게 공간에 표현되고 있는가를 연구하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콥 힘멜브라우의 주요건축철학인 해체주의와 초현실주의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콥 힘멜브라우의 해

* 정회원, 국민대학교 실내디자인학과 교수

** 정회원,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대학원 실내디자인학과 석사과정

1)해체주의 건축에서 보여주었던 표면적 형태의 해체를 넘어서 해체주의 철학에서 나타난 공간개념과 사상까지의 해체를 의미하고 있다.

체 어휘를 통해 그들이 표현하는 ‘열린 공간’ 개념을 중심으로 그들의 건축 작품이 가지고 있는 건축철학과 건축설계개념에 관해 연구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쿵 힘멜브라우(Coop Himmelblau)²⁾의 건축세계는 무엇보다도 ‘열린 공간’(Open Space)이라는 개념으로 그들의 건축세계를 특징적으로 드러낸다. 본 연구는 전체적으로 그들의 ‘열린 공간’에 관한 인식을 바탕으로 그들의 대표작품인 비엔나 옥상 증축, 개방주택, 펀더 베르크사 3공장(Funder Factory 3) 등 다수의 작품을 분석하고 그들의 건축에 나타나는 ‘열린 공간’ 개념을 중심으로 비정형성, 비영역성, 개방성, 투명성, 역동성, 플라주적 특성 등의 관점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범위는 쿵 힘멜브라우의 건축적 배경인 해체주의 이론과, 초현실주의 이론을 파악하고 이어서, 쿵 힘멜브라우 건축 설계 이념인 ‘열린 공간’의 개념과 설계방법, 공간표현 특징을 해체철학에 의해 디자인을 분석하여 끝으로, 열린 공간 개념에 의해 추출된 공간 개념적 어휘를 통해 작품들을 분석하는 것으로 본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2. 쿵 힘멜브라우의 건축적 배경

2.1. 해체주의 개념

‘해체주의’(Deconstructivism)의 말은 기존의 로고스(Logos) 중심주의적 체계 속에서 사용되고 있는 형이상학적 사고를 구조로 대체함으로써 재해석하기 위해, 플라톤 이후 서양 철학의 중심개념으로 내려오던 절대주의적 사고와 진리를 해체하는 것이다. 즉, 해체주의는 현전의 형이상학이라 부르는 철학적 사유 전통 본체나 현상, 요소, 개념, 원리, 중심 등을 발견하려고 노력하는 전통에 대한 강력한 비판이다. 이는 전통이라는 광범위한 의미의 텍스트를 포함하여 어떤 특정한 텍스트들에 대한 해체이다. 건축의 기본 전제인 중력이라는 절대적인 물리적 조건과 구조와의 관계, 내부공간에 있어 인간의 거주라는 필수적인 기능과 각각의 구조물에 부여되는 용도와 기능의 문제 등을 재해석하는 것이다. 해체철학에 선구자 역할을 주도한 데리다(J. Derrida)는 소쉬르의 ‘기호학’ 논의에서부터 시작한 탈구조주의적 경향을 탐지하고 의미와 기호의 불확실성에서부터 해체가 시작된다고 말한다. 기존의 구조나 기호의 개념은 의미의 중심이

2)독일어로 협동(Cooperative)이라는 Coop과 하늘(Sky)이라는 Himmel 그리고 푸른(Blue)이라 Blau의 합성어이다. 즉, 이름은 ‘푸른 하늘’을 표방하고 ‘푸른 하늘을 만드는 회사’라는 뜻이며 이는 그들의 건축관인 ‘열린 공간’과 부합된다. 어떤 색(色)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상 즉 다변화하며 환상적이고 공상적인 건축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그룹은 헬무트슈윈스키(Helmut Swiczinsky)와 울프프릭스(Wolf. D. Prix)가 1968년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공동 설립하였다.

<표 1> 해체주의 기본 정의

| 기본개념 | 기본 정의 |
|---------------------------|---|
| 흔적 (Trace) | 절대적 진리와 의미는 항상 흔적으로 유보되어 있고 실제로 제시되는 것의 실상은 허구나 은유 일 뿐이다. |
| 차연 (Difference) | 데리다가 만들어낸 신조어로 재현행위가 아닌 형태를 변화시킨 현재로서의 과거이거나 미래가 아닌 것과의 관계이다. |
| 상호 텍스트성 (Intertextuality) | 인용과 반복을 통한 텍스트의 유희 또한 유희가 갖는 산중적 성격, 결정론적 독해를 몰아내고 열린 독해를 지향한다. |
| 산중 (Dissemination) | 원천의 장에서부터 떨어져 여기저기에 흩어져 새로운 의미작용, 많은 조합 가능성을 추구하고 상황의 진행은 무한성을 가진다. |
| 보충 (Supplement) | 두 가지 의미작용이 상존한다. 이미 존재하는 단어의 부가되는 일종의 잉여이고 과잉이다. |
| 글쓰기 (Ecriture) | 문자, 문체, 서적이라고 하는 의미와 쓰는 행위, 또는 쓰는 방법이라고 하는 의미를 나타낸다. |

현존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데리다는 이것을 ‘로고스(Logos) 중심주의’³⁾라 한다. 따라서 해체의 진정한 의미는 서구의 로고스 중심주의적 사상에 반하여 이성을 찾자는 것을 의미한다. 내부의 근본적 해체를 추구하는 데리다의 해체이론은 ‘구조’나 ‘위계질서’등에 대한 저항이며, 무질서, 무중력을 그대로 포용하고 다양성과 사고의 열림을 추구하여 비정형적 ‘열린 공간’의 상태를 지향하는 태도에 있다.⁴⁾

2.2. 초현실주의

꿈, 무의식, 환상 등을 표현하는 초현실주의⁵⁾는 정형적인 공간 규범 관습을 파괴하고 이성, 정형적 구조에 대항하며 유기적 이미지와 무 중력적 이미지를 추구한다. 이는 구조주의적, 고전주의를 파괴하는 양상이다. 즉, 통일 대신 해체, 실재정보다는 허구성, 집단성보다는 개체성을, 외재정보다는 내재성을, 이성보다는 감성을, 필연성보다는 우발성을, 현실정보다는 허구성을 공간구조로 해체하여 시각화함으로써 광기, 쾌락, 관능, 은폐의 개념들을 자유롭게 표현한다. 쿵 힘멜브라우는 초현실주의 기법 중 비정형적, 무중력 형태, 스케일의 변형, 상호침투, 동시성, 플라주, 상징, 재료의 개방성 등의 기법을 사용하고 이는 프로그램의 병치, 형태의 병치, 오브제의 병치, 재료의 병치로 정리된다.⁶⁾

3)가능한 현존 최고의 중심이란 뜻의 성서의 용어로서(Logos-‘말’의 그리스어)이다.

4)이종무, 해체주의 건축의 형성배경과 성격에 관한 연구 - 디자인개념과 형태 표현 분석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석사 논문, 1993년 2월, p.84

5)Surrealism이라고 하는 초현실주의는 제1차 세계대전 종전 후, 다다이즘의 파괴적인 태도에 만족할 수 없었던 앙드레브르통(Andre Breton 1886~1966)를 중심으로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 영향을 받아 무의식의 세계, 꿈의 세계표현을 지향하는 20세기 예술사조이다.

6)신현숙, 초현실주의, 동아출판사 1992년, p.12



<그림 1> 쿵 힘멜브라우, Apartment building
Gasometer B, 스케치

‘초현실주의의 미술적 기법의 비결’이라고 불렀던 ‘자동기술법’(Automatism) 기법은 ‘무의식에 떠오르는 생각들의 받아쓰기’이다. 또는 자동기술은 욕망을 표현한다는 말이다. 초현실주의의 기본이념인 정신해방도 무의식의 해방이고 절대자유도 무의식의 실현이다. 또한 자동기술이 갖는 가장 근본적인 기능은 ‘무의식의 표출’과 ‘우연적인 효과’의 표현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기법은 무의식과 우연성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의식의 조정을 피할 수 없다. 쿵 힘멜브라우는 이런 영감에 의해 우발적인 스케치를 행함으로써 형태의 우연성을 추구하고 있으며, 영감의 상태에서 손으로 전달되어 나오는 심리과정의 그래프가 바로 그들에게는 드로잉이 되고 있다. 이러한 드로잉은 모델 작업과 같은 투시적 지상 평면으로 탈바꿈한다. 이와 같이 쿵 힘멜브라우는 해체의 철학적 배경을 기본으로 초현실주의의 자동기술법을 통하여 그들의 건축세계에서 ‘열린 공간’을 추구하고 있다.

3. 쿵 힘멜브라우의 건축 설계 이념

3.1. ‘열린 공간’ 개념

쿵 힘멜브라우의 ‘열린 공간’은 기존의 위계적 질서 속의 논리체계와 실질적인 압박에 아부하는 것을 거절한다. 그들의 디자인은 역동적 행동으로 태어난다. 가능한 한 통제를 삼가고 건물에 대한 느낌을 있는 그대로 종이 위에 던질 때 비로소 열정과 직접성, 에너지, 열광 등이 유지된다. 그들의 부서진 건축에는 다른 사람들이 거부하는 뼈저려움이 있다. 그들은 기울어짐, 비틀림, 꿰뚫음, 파괴, 갈라진 틈과 같이 방법을 자유롭게 적용함으로써 흔적이 남는 공간과 대조를 이루는 명료하고 시적인 공간의 건축을 창조한다.⁷⁾ 기존의 해체주의 건축가 렘 쿨하스(Rem Koolhaas)나 피터 아이젠만(Peter Eisenman), 자하 하디드(Zaha M. Hadid), 베르나르 츠뭤(Bernard Tschumi) 등은 비전통적인 방식을 공간에 표현하지만 여전히 전통적인 표현방법에 의존하고 있다. 예를 들면 벽을 중첩시키고 경사지게 하고 또는 절단하지만 이것은 여전히 벽으로서 기능을 하거나 인식되게 된다. 그들은 곧 기존의 건축적 전통에 자리바꿈이나

변형하는 것에서부터 만들어진다. 하지만 쿵 힘멜브라우는 기존의 전통 해체방식을 완전히 포기하고 건축공간에 새로운 규칙들을 전개하는 유일한 건축가이다. 그들의 공간에서는 벽, 기둥, 지붕과 같은 건축요소를 찾아 볼 수 없다. 게다가 동일한 형태와 치수로 사용된 것은 하나도 없다. 그 공간들은 익숙한 건축요소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다양한 요소로 이루어 졌다. 모든 건축 요소는 그것이 위치, 형상, 각도, 구조, 기능, 재료에 의해 자신의 자리를 규정하고 있다. 그것은 살아있는 건축적 무정부 상태이다. 기존의 건축적 전통과 관습으로부터의 총체적인 해방이다. 다시 말해 이들의 건축은 열린 건축을 지향하고 있다. 열린 건축은 열린 사회를 지향하는 것으로 지각과 열린 마음의 의미를 내포하며, 이는 구조적이고 보편적으로 여겨지는 절대성에 대한 부정으로부터 시작되어 지는 것이다. 구조물을 해방시키고 목적론을 파기하면 그 결과로 건물들의 공간이 중첩되고 개방되어진다. 이는 열린 건축의 가장 큰 특징인 개방성을 의미하기도 한다. ‘열림’이란 사이와 경계의 개방을 의미하며, 그 사이가 개방됨으로서 각각의 대립들이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함을 알 수 있다.

3.2. ‘열린 공간’ 설계 방법론

‘열린 공간’은 구조물을 해방시키고, 목적론을 파기하고, 그 결과로 건축물들의 공간이 중첩되고 개방되어 진다. 이는 곧, ‘열린 공간’에 있어서 공간의 개방성을 의미하기도 한다. 열린 공간을 추구하는 쿵 힘멜브라우는 다양한 해체주의 건축을 통해 열림의 공간, 무목적 구조물, 개방된 사고와 개방된 공간, 독창적인 디자인 착상 과정, 역설계 방식인 3차원적 설계법에 의해 표현되는 반중력성, 비 정형성, 비영역성, 투명성, 풀라쥬, 역동성 등을 특징으로 하는 건축을 만들어 왔다. 그것은 기존의 ‘해체주의 건축이상의 해체주의’를 통해 현대건축의 흐름을 포착해 보고자 하는 의도인 것이다. 그들의 건축은 감각적인 것과 테크놀러지적인 것의 결합을 추구한다. 다시 말해 그들의 건축은 자연과 기술이라는 두 극단적인 세계의 결합을 시도하고 있다. ‘열린 공간’은 어떤 특정한 목적과 존재의 충족을 위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자기 충족적인 구조물’을 의미한다. 즉, 사용자를 구속하지는 않지만 자기 충족적으로 일정 범위의 가능성을 제공하는 다양한 공간들로 구성된 구조물인 것이다. 무목적 구조물이 그 자체로 자기 충족적인 구조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쿵 힘멜브라우는 설계 진행의 방법으로서 개방된 사고를 바탕으로 개방된 공간을 이끌어 낸다. 그들은 현세계의 공간을 파괴하고 해방시키는 것에 의미를 찾는다. 이러한 공간을 표현하기 위해서 중력에 의한 벽과 지붕은 반드시 해체되어 재구성되어야 하며, 공간 형성의 복잡한 체계는 그들이 추구하는 건축이념이며 스스로의 계보를 해체하여 공간의 위계성에 반발한다. 이들은 공간구획이나 법규 등을 어떻게 구

7) 피터 노에버, 뉴모더니즘과 해체주의1, 청람출판사, 1996년, p.21

축하는가에 의존함 없이 그들이 추구하는 건축의 도구로 사이코 그래프⁸⁾이라는 밀도 있는 스케치들을 처음으로 만들어 사용한다. 이러한 혼란스럽고 직관적인 스케치들은 실제작업으로 전환된다. 전통적인 2차원적 표현방법을 거부하고 3차원적 공간의 다이나미즘(dynamism)으로 공간계획을 해석함으로써 공간의 시각적인 힘을 나타내며 동선들을 공간 속에서 역동적으로 표현하고 2차원방법으로 표현될 수 없는 다층적 공간을 동시에 표현하는 ‘역설계 방식’을 사용한다.

3.3. ‘열린 공간’의 표현적 특징

(1) 타오르는 듯한 형상

쿱 힘멜브라우는 ‘건축은 타올라야 한다’⁹⁾고 말하였는데 이것은 그들이 말하는 건축은 감정을 불사르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이점은 ‘파괴’(destruction)와 다른 점이다. 라고 말한다. 타오르는 건축을 표현하기 위해 ‘불꽃’으로 형태 변화를 완벽하게 활용했다. 비틀리고 경사진 구조물에 관한 아이디어를 이 ‘불꽃’에서 착안하고 공간의 표현에서 ‘불타는 화살’이며, ‘화염’으로 공간을 표현하고자 한다.

(2) 복합적 공간요소

벽이라는 기본적 주된 요소가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의미로 재해석을 시도한다. 벽은 부분적으로 벽이고 부분적으로 지붕이고 바닥이 될 수 있는 복합적인 의미 이상의 것으로 사용한다. 관습적인 의미로 말하면 건축요소는 벽도 아니고 지붕도 아니라 새로운 공간을 구성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3) 내, 외부의 상호관입

이중 셸과 투명한 재료, 선적인 부재의 사용은 건축을 투명하게 만든다. 내 외부 공간의 상호 관입과 해방감을 부여하게 되고 부유하는 듯한 비물질적 공간을 생성한다. 곧, 닫힌 공간에서 ‘열린 공간’으로 내부에서 외부로 공간이 확장된다.

(4) 공간의 위계성 반발

중력적이지 않은 무중력적 표현, 공간의 위계성에 의한 반발로 중심에 종속되지 않고 다 중심으로 조각 낸다. 사물의 보편 타당성에 타협하지 않고 공간의 복수 중심성을 추구하고자 한다.

(5) 텍스트의 전환

기존의 사물을 다르게 보기, 건축에 새로움, 낯설게 하기 등을 통해 건축 해석의 새로운 가능성을 추구하여, 스케일을 과장한다.

<표 2> 쿱 힘멜브라우의 열린 공간 표현특징 분석표

| 표현개념 | 표현특징 | 열린 공간 | | 이미지 |
|------------|--------------------|---|----------------------------------|-----|
| | | 이성적 공간 | 감성적 공간 | |
| 불 | 타오르는 듯한 형상 | 플라톤적 사유에 의한 태양의 존재 공간 | 불의 상징적 이미지표현 | |
| 텍스트 (Text) | 복합적 공간요소 | 데리다(Derrida)의 로고스(Logos)와 텍스트(Text)의 이분법적 사유 공간 | 텍스트의 비정형적 공간 표현 | |
| 추상 | 내, 외부의 상호작용 | 데리다(Derrida)의 비 형이상학적 공간 | 공간의 비 영역적 표현 (벽, 바닥, 천장의 개념의 해체) | |
| 플라주 | 텍스트의 전환, 공간의 위계성반발 | 데리다(Derrida)의 첨가 대체 공간 | 텍스트의 탈정형화 공간 표현 | |

4. ‘열린 공간’ 개념에 의한 분석

쿱 힘멜브라우의 작품들은 ‘열린 공간’ 개념을 기초로 설계되었고 열린 공간을 표현하는 방법에는 공간의 개방성, 투명성, 영역성, 기하학적 충돌에 의한 비정형성, 플라주 기법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연구 목표인 ‘열린 공간’ 개념을 5가지로 분류하여 각각에 사고에 적용된 작품들의 분석을 통해 파악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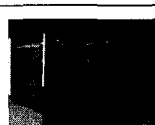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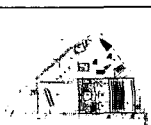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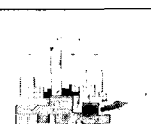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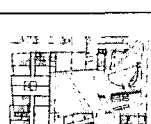




4.1. 공간의 개방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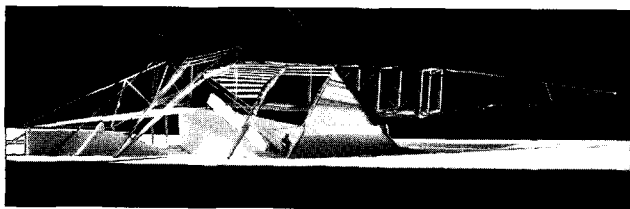
쿱 힘멜브라우의 열린 공간개념을 가장 잘 표현해줄 공간의 개방성은 전통적 건축 요소인 구조, 기능, 재료, 형상으로부터 탈피한 총체적인 해방이고, 사이와 경계의 개방으로 내외부가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한다. 개방성은 안정적이고 보편적인 것에 대한 부정으로부터 해방이 되어 열린 마음을 내포하고 있으며 구조물과 목적론 파기를 획득한다. 이는 곧, 현재 세계의 공간을 해방시키는 것에서 의미를 찾는다. 위계성에 반발로 평면적 설계방식에서 벗어나 역설계방식인 3차원 공간 설계법으로 다이나믹한(dynamic) 공간을 해석함으로써 다층적 공간을 동시에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열린 공간추구는 쿱 힘멜브라우의 초기작인 ‘개방 주택’(Open house)에서 볼 수 있다. 개방주택은 쿱 힘멜브라우의 건축사상 ‘열린 공간’ 개념 즉 ‘개방성’이 가장 잘 들어난 작품으로 자신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작품이다. 전통적인 벽, 기둥으로부터 해방되고 새로운 요소들로 이루어진다. 동일한 치수와 형태는 사용하지 않으며 새롭게 의미가 부여된 공간은 반 중력적이며 절대적 기준에서 해방되어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개방성을 추구한다.

8)사이코그램(Psychogram)이란 전통적 규범을 벗어난 3차원 모델링 방법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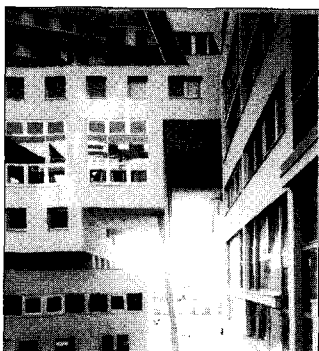
9)쿱힘멜브라우는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그들의 건축표현의 특징을 정의하고 있다. ‘건축은 동굴처럼 움푹하고 불꽃이 타오르고, 부드럽고, 딱딱하고, 각지고, 냉엄하고, 원만하고, 섬세하고, 화려하고... 뜨거울때는 바로 그때는 타오르는 불꽃처럼 뜨거울 것이다. 건축은 타올라야 한다.’ 피터노에버, 뉴모더니즘과 해체주의1, 청람 출판사, 1996년, p.43

< 표 3 > 쿵 힘멜브라우의 작품 분석표

| 건축명 | 연도 | 용도 | 위치 | 크기 | 쿵 힘멜브라우의 건축 분석 | | 건물 외관 | 도면 | 내용 | 비고 |
|------------------------------------|---------------|-----------|----------------------------------|----------|----------------|--|--|---|---|-----|
| Rooftop remodeling falkestrasse | 1983~ 1988 | 사무실 | Vienna, Austria | 400㎡ | 디자인개념 | 열린 공간 |  |  | 내, 외부 전체적 맥락이 하나됨을 표현함. 불안정하고 뒤엉킨 복잡성을 표현 한다. 뒤틀어지고 과격한 표현, 뚜렷한 입체표현 탈 중심 | |
| | | | | | 디자인방법 | 도로와 지붕사이의 시각적 관계에 비중, 절단, 파괴, 분열, 폴드(fold)기법 | | | | |
| | | | | | 형태 표현 | 하늘을 비상하는 새의 모양 곤충, 절지동물의 생물적 이미지 | | | | |
| Open House | 1983 | 주택 | 캘리포니아 | 100㎡ | 디자인 개념 | 열린 공간, 패시브 에너지 개념 |  |  | 쿵 힘멜브라우의 열린 공간사상이 가장 잘 들어난 작품으로 개방건축에 대한 생각과 사고에 대한 개념이 잘 전달되어지고 있다. | 계획안 |
| | | | | | 디자인 방법 | 자동 기술법적 방법, 무의식의 영감 | | | | |
| | | | | | 형태 표현 | 전체적으로 부유하는 느낌 | | | | |
| Funder Factory 3 | 1989 | 사무실 공장 | Vienna, Austria | 6,500㎡ | 디자인 개념 | 상호 텍스트성을 이용한 매스의 불륨을 조각적 디자인 요소로 구성 |  |  | 다양한 각도의 부재들이 파편처럼 모여있다. 비상하는 날개모양의 거대한개노피 출구는 굴뚝, 비틀어진 유리창 | |
| | | | | | 디자인 방법 | 폴리주 기법 형태를 유회적 조각적 분해 | | | | |
| | | | | | 형태 표현 | 뒤틀린 각도, 구겨진 모서리 경사지고 비틀어진 공간 | | | | |
| 로니치 극장 | 1989 | 다중 체계적 극장 | Vienna, Austria | 600㎡ | 디자인 개념 | 열린 공간, 개방성. |  |  | 통상적 극장의 개념을 해체가능, 평면구성과 기존의 제약의 역사적 기법들의 보존의 혼합의 결정체로 승화함 | |
| | | | | | 디자인 방법 | 동티주 기법, 텍스트의 전환, 혼합 | | | | |
| | | | | | 형태 표현 | 폴리주 이미지, 기계적 표현. 은유의 혼성적 표현 | | | | |
| Groninger museum east pavillon | 1993~ 1995 | 박물관 | Groning er, Netherla nd | 900㎡ | 디자인 개념 | 열린 공간, 관습적 의미로부터 탈피 |  |  | 공간에 선적요소와 비 직교하는 면적요소들의 중첩과 비정형화에서 다면성의 공간은 오히려 투명해진다. 다중시점처럼 모호한 방향성을 가진 공간은 역동성과 유연한 조화를 이룬다. | |
| | | | | | 디자인 방법 | 혼성적 요소 사용, 레이어 겹쳐보이기 폴리주 기법, 다중시점처리 | | | | |
| | | | | | 형태 표현 | 혼성적 의미의 공간, 모호한 방향성, 역동적 투명한 공간표현 | | | | |
| UFA Cienma Center | 1998 | 극장 문화센터 | Dresden, German y | 6,900㎡ | 디자인 개념 | 도시 내에 새로운 도시성-열린 공간 |  |  | 전체도시와 상호 연결되는 에너지 밀도화와 건물이 곧 도시화가 되고 도시가 건물과 상호대화를 유지한다. 다양한 높이의 공간전개는 공간을 3차원적으로 나타낸다. | |
| | | | | | 디자인 방법 | Interplacement, 공간적 얽힘 3차원적 공간 전개 | | | | |
| | | | | | 형태 표현 | 새로운 기능분화 역동적 공간적 시퀀스 창출 | | | | |
| JVC-new urban entertainment center | 2001 | 지식교류장소 | Guadalaj ara, Mexico | 212,500㎡ | 디자인 개념 | 개방된 도시의 랜드 스케이프(Landscape) 열린 공간 |  |  | 새로운 의미와 기능이 부여된 미래시장 표현 단순한 소비시장이 아닌 지식의 교류 장소로 정의 한다 곧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한 시설이다. 내외부의 유연한 공간이동이 허용된다. | 계획안 |
| | | | | | 디자인 방법 | 매스들의 분할, 공간의 얽힘, 유연적 공간, 공간적인 시퀀스 창출 | | | | |
| | | | | | 형태 표현 | 비정형적, 모서리파괴, 불안정 | | | | |
| Apartment Building GASOMETER B | 1995~ 2001 | 아파트 사무실 | Vienna, Austria | 34,000㎡ | 디자인 개념 | 네 개의 가스저장소와 그 이상-기법 비적인 보호, 역사적인 센터 |  |  | 무용지물이 된 네 개의 산업기념물을 지역적인 새로운 의미의 도시 센터로 창출된 것이다. 공간의 밀도화와 복합적인 해결방안으로 도시전체의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한다. | |
| | | | | | 디자인 방법 | 밀도적인 공간표현과 경제적 구성 역할의 시너지적 효과 방법 | | | | |
| | | | | | 형태 표현 | 비엔나의 건축의 시터케이프 표현, | | | | |
| SEG apartment Block Remise | 1994~ 2000 | 아파트 사무실 | Vienna, Austria | 19,150㎡ | 디자인 개념 | 개방적이고 차별된 미래의 삶을 형식을 제공해 주는 주택개념 |  |  | 새로운 삶의 형식의 기회를 제공하고 저층부터 고층까지 똑같은 밀도를 유지하여 다양한 높이에서 휴게공간을 제공한다. 닫힌 공간과 열린 공간이 조화가 풍요로운 삶을 제공한다. | |
| | | | | | 디자인 방법 | 동일한 밀도와 개방된 공간의 관계적 간접적으로 주변 도시환경 수용 | | | | |
| | | | | | 형태 표현 | 다양한 높이에 휴게 공간 제공 | | | | |
| SEG apartment Tower | 1994~ 1998 | 아파트 사무실 | Vienna, Austria | 12,250㎡ | 디자인 개념 | '주택위에 다른 주택을 얹는' 개념 '기후 파사드' 개념 수동적 에너지개념 -인텔리전트 |  |  | 인텔리전트한 타워로써 미래지향적 주택이다. 최첨단화와 스스로 에너지를 저장하고 방출하는 시스템으로 구축 되어 있다. | |
| | | | | | 디자인 방법 | 다른 건물과의 '도나우-시티' 형성, | | | | |
| | | | | | 형태 표현 | 서로 다른 개념의 공간 상호 연결하여 새로운 공간창출 | | | | |
| Musee des Confluences | 2001~ 2005 | 도서관, 박물관 | Lyon, France | 24,000㎡ | 디자인 개념 | 도시 내에 기념비적 상징물 |  |  | 공간의 무한한 가능성과 변화의 부유하는 구름공간을 내포 하고 있고 공간들은 실험적이고 미래지향적이며 안과 밖의 경계가 없는 무한한 공간을 창출한다 | 계획안 |
| | | | | | 디자인 방법 | 크리스탈과 클라우드(Cloud)의 대립적 의미 표현 이중원추 | | | | |
| | | | | | 형태 표현 | 그랜드피아노 뚜껑의 형상 솟아오르는 구름모양 모서리 파괴 | | | | |
| AKron Art Museum | 2001~ 2005 | 박물관 | Ohio, USA | 7,440㎡ | 디자인 개념 | 도시의 공간으로서의 박물관 |  |  | 박물관은 더 이상 지식의 저장고가 아닌 하나의 도시적 개념을 내포한다. 도시 내에 3차원적인 상징이며 시각적 세계를 전달한다. | 계획안 |
| | | | | | 디자인 방법 | 도시적 연결, 혼성적 공간 | | | | |
| | | | | | 형태 표현 | 웅장하고 유연적 표현 내,외부 방식 재통합 | | | | |



<그림 2> 개방주택 모형, 19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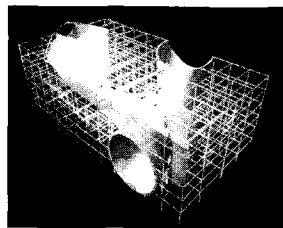


<그림 3> SEG apartment block remise, 19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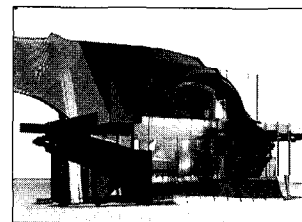


<그림 4> 비엔나 옥상 증축안, 1989

Kisler)의 'Endless space'공간 개념과 의미를 같이한다. 그는 장방형의 구조물에 반기를 들었으며 '연속적인 건축물'을 창조 하길 바랬다. 또한 모스쿠 레스토랑(Mosku restaurant)의 경우는 텍스트기법을 사용해서 벽과 천정의 영역을 모호하게 했다. 전체적으로 구부러진 C자형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영역이 모호해진 공간을 층의 레벨(Level)차를 두어 공간의 영역을 바(Bar)와 레스토랑(Restaurant)과 테라스(Terrace)로 구분하였다. 테라스의 경우는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이 상호 연결된 열린 공간으로 기능적 측면에서 비 영역적 공간이 된다.



<그림 5> Imba biocenter, 1999 · 2000



<그림 6> Bar restaurant MOSKU, 2000 · 2001

비엔나의 전통적인 아파트 블록에 다락방을 개조한 '비엔나 옥상 증축'(Rooftop Remodeling)은 안정된 형태에 불안정한 비정형적 형태의 구조에 의해 활모양의 유기적인 집 형태를 형성하였다. 이 활모양의 구조물은 기존의 지붕을 파괴하고 새로운 빛과 공기로 무한한 공간을 창출하였으며 내, 외부로의 조망이 상호보완된 관계의 복잡성을 창출한다. 열려진 지붕구조물들이 벽에서 바닥까지 구분 없이 연결되어, 사용자의 시선범위를 한정짓지 않고 내부에서 외부까지 전체적 맥락이 하나 될 수 있는 시선의 개방성을 제공한다. 불규칙하게 중첩된 선과 면들은 각각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복잡하게 얽혀져 다수의 시점이 교차된 모호한 시점을 형성한다. 이것은 단순한 시점에 의해 형성되는 면의 중첩과는 달리 사용자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무수한 시점을 제공한다. 'SEG 아파트 블록 라미즈'(SEG Apartment block remise)에서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시점을 제공함으로써 사용자에게 공간 시점의 개방성을 추구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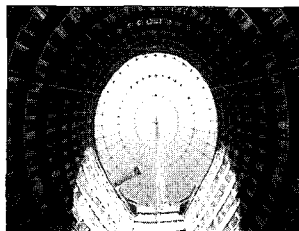
4.2. 공간의 비 영역성

'임바 바이오센터'(Imba Biocenter)와 '모스쿠 레스토랑'(Mosku Restaurant)의 작품들은 수직, 수평체계의 그리드(Grid)를 반대하여 벽은 더 이상 벽이 아니며 부분적으로 지붕이 되고 바닥이 되며 혼성적이고 비 영역적인 모호한 의미로 해석된다. 더 이상 관습적이지 않은 실내디자인 요소들은 새로운 의미로 공간의 영역성이 모호해진다. 곧 개방적이 되며 열린 공간을 추구한다. 비영역성 개념은 '프레더릭 존 키슬러'¹⁰⁾Frederick Joh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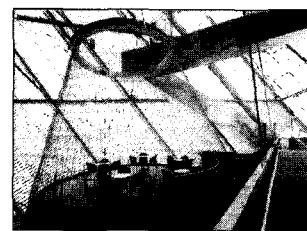
10)프레더릭 키슬러 (Kiesler, Frederick John) [1896. 9. 22 ~ 1965. 12. 27]. 빈 출생. 그의 생애의 건축적 주제는 끝없는 건축 공간이다. 그의

4.3. 공간의 투명성

공간의 투명성(Transparent)은 열린 공간을 시각적으로 바로 느낄 수 있는 개념이다. 이는 동시성, 내, 외부의 상호관 입으로 시각적 확장성과 양면적 가치를 지닌다. 투명성은 건축 재료인 유리와 관련이 크다. 산업혁명 이후 건축의 재료에 유리와 철의 등장으로 '투명한 건축'의 실현이 되었다. 철과 유리의 사용,



<그림 7> Apartment building Gasometer B, 1995 · 2001



<그림 8> UFA cinema center, 1998

선적 부재의 사용 등은 건축을 투명하게 만든다. 1949년 필립 존슨(Philip Johnson)의 유리주택(Glass house)과 1950년 미스 반데 로어(Mies van der Rohe)의 판스워드 주택(Farnsworth house)은 유리를 사용하여 현대건축에 투명성을 이룩한 뛰어난 작품들이라 하겠다. 투명성이 확보되면 내 외부공간에 가시적 해방감을 부여하여 닫힌 공간에서 열린 공간을 추구하게 된다. '아파트 빌딩 가스탱크 B'(Apartment Building Gasometer B)는 천장 공간에 투명성을 부여해 내부공간이 외부로 확장되어 전

공간이념의 독창성이 일반적으로 인정된 것은 1959년에 뉴욕근대미술관에서 발표한 '끝없는 집'의 평가가 결정적인 것이었다. 그의 독창적인 공간은 많은 근대건축의 상자형 공간을 초월하여 유연한 넓이와 무한한 연속성을 가지고 전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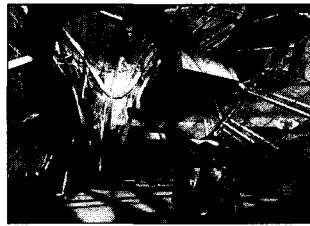
체적 맥락이 하나 되는 무한하게 열려진 공간을 추구하고 'UFA 극장'(UFA Cinema center)에서 휴게실 내부에 떠있는 이중원추인 스카이 바는 다양한 기능을 수용하고 건물은 도시가 건물로부터 투명해진 것만큼 도시에 대해서도 투명성을 획득한다. 내외부가 열려진 건물로서 도시와의 대화를 유지한다. 곧 건물이 투명하여 도시의 성격까지 수용하는 '열린 공간'이 된다.

4.4. 기하학적 충돌에 의한 비정형적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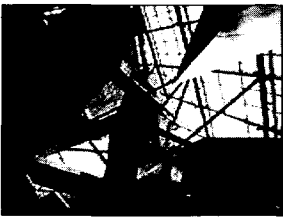
'비정형적'공간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대량생산이 본격화되면서 기존의 무표정한 박스형태는 다원적이고 다가치적인 현대 사회에 이르러 전환점을 맞게 되어 이에 대한 대안으로 풍부한 상상력과 창조적인 조형성을 추구하는 비정형 건축의 경향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러한 비정형성(informal)의 시발점으로 르 꼬르뷔제(Le Corbusier)를 들 수 있으며 그의 걸작인 통상교회에서 '콘크리트의 가소성'을 이용한 조형성 짙은 조각적인 비정형적 형태를 만들었다. 비정형적 건축은 여러 가지 매스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관입, 중첩, 대립, 모순되어 변천하고 더욱 복잡한 비정형적 형태를 형성하게 된다.



<그림 9> JVC-new urban entertainment center, 2001



<그림 10> Musee des confluences, 2001~2005



<그림 11> UFA cinema center, 1998



<그림 12> JVC-new urban entertainment center, 2001

비정형적 형태구성 원리로서는 기하조작을 넘어 기하학의 파괴를 통하여 형태를 구성하는 경향을 보이고, 모서리 파괴, 폴드(Fold)등으로 나눌 수 있다. 위 작품들은 2차원의 평면적인 형상에서 벗어나 3차원의 매스층들로 중력방향의 직교체계를 탈피하여 사선적 구도를 강조하며 부유하려는 반 중력적이고 역동적인 예상할 수 없는 난해한 형상을 나타낸다. 또한 매스들을 투명한 유리로 처리하여 공간의 개방성을 나타내어 더욱 반 중력적 이미지를 배가시키기도 한다. 'JVC-엔터테인먼트 센터'(JVC-New urban entertainment center)와 '컨플루언스 박물관'

(Musee des confluences) 작품의 경우에 내, 외부에 도시의 시퀀스를 나타내는 역동적이고 유동적인 공공 공간을 설치하여 새로운 도시적 생태학적 공간을 창출한다. 서로 다른 매스들은 관입하여 기하충돌이 일어나고 모서리가 파괴됨으로서 불안정한 비정형 형태를 나타낸다. 그것은 하늘을 향해 올라가려는 캐노피를 관입시켜 역동적이고 반 중력인 비정형적 이미지를 극대화하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특히, JVC-엔터테인먼트 센터 (JVC-New urban entertainment center)의 작품에서 보여지는 '모서리 파괴 기법'은 기존의 직각인 폐쇄적인 모서리 형태를 파괴하려는 움직임으로서 정형적인 형태에서 모서리가 폭발한 듯한 이미지와 여기에 유리를 사용하여 모호한 비정형적인 형태를 형성하여 역동적과 투명한 유리로 하여금 내, 외부 공간의 상호관입이 일어나 시각적인 확장성이 부여된다. 기울어지고 뒤틀어진 비정형적 형태는 균형의 결여와 불안정감을 통해 긴장감과 시각적 운동감을 유발시켜 '열린 공간'을 표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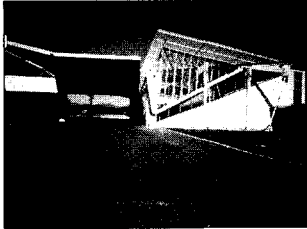
4.5. 공간의 콜라주적 기법

콜라주(Collage)는 현대사회의 혼성적이고 다양한 사회특성을 건축에도 영향을 끼쳐 해체주의 건축의 다원화, 복합성에 대한 개념에서 표현되어진다. 디자인과정이 점점 개인의 미적 자의성에 의해 지배되면서 즉흥적인 콜라주 방식이 이용된다.

단편적인 요소들이 결합하여 하나의 상을 형성하는 콜라주 사용은 공간의 각 요소들이 변화하며 혼재적 공간구성과 다양한 공간구성에 영향을 미친다. 쿽 힘멜브라우는 '열린 공간'을 실현하기 위해 콜라주 기법 중, 개인의 미적 자의성을 표현하기 위한 초현실주의의 자동기술법을 사용한다. 건축의 생성과정은 개방적이고 의식적이고 정적인 상태가 아닌 잠재적인 무의식의 세계에서 역동적으로 표현되어 전개된다. 따라서 개방공간의 추구는 콜라주 기법으로도 표현되어진다. '그로닝거 박물관'(Groninger museum)은 한 방향의 축이 아닌 다방면의 축을 중첩하고 상호관입하며 공간의 다원성을 추구한다. '그로닝거 박물관'(Groninger museum)의 경우 축의 겹침으로 내, 외부의 모든 구조물들이 기울어진 비 직교하는 면과 선에 의해 중첩되어 비정형화 되고 다면성을 드러낸다. 이러한 꺾이고 기울어진 요소들이 겹치면서 일정한 규칙이 발견되지 않는 형태로 드러내는데 이로 인해 관람객은 위치에 따라 다중시점을 느끼게 된다. 구조물들이 벽이 없어 개방되어짐에 따라 시각적 개방성을 획득하여 다른 사람들의 움직임을 보며 시선이 일직선의 연속성이 아닌 불연속성으로 연결된다. 벽과 선적 구조물들

11) 콜라주(Collage)란 불어의 'Coller'(폴로 붙이다)에서 유래한 말로 '폴컬' 하나의 받침 판위에 각기 다른 재료의 단편들을 붙이고 조립하는 방법으로 '빠빠에 폴레'라 부른다. 콜라주 기법은 다다이즘, 초현실주의를 거쳐 현대에 이르기까지 표현과 형식면에서 다양한 변화를 가지고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은 기울어진 각도로 공중에 떠 있으며 중앙의 다리는 부유하는 공간을 형성한다. 이런 사선과 예각은 방향성에 긴장을 제공하고 개방적인 공간 구성에 의해 다른 공간과 상호 작용한다. 또한 단편의 변형과, 파장, 왜곡, 절단, 파괴는 우연한 새로운 효과를 부여한다. 이러한 특성은 플라쥬 기법 중 앓쌍 블라쥬¹²⁾나 메르츠 플라쥬¹³⁾ 기법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그림 13> Funder Factory 3, 1998



<그림 14> Groninger museum east pavillion, 1993-1995

‘펀더 공장 3’의 경우는 직육면체 형태를 기본으로 플라쥬적인 요소를 사용하여 부분적으로 형태적 유희가 이루어진다. 직육면체에 선적 요소들이 여러 층으로 중첩되어 기울어지고 서로 엇힌 3개의 굴뚝이 역동적으로 표현되어진다. 형태가 해체됨에 따라 기능의 해체는 사용자 행위에 의해 그 행위가 설정될 수 있다는 ‘열린 공간’의 의미이다.

5. 결론

이상으로 쿵 힘멜브라우의 기본 철학 사고인 해체주의와 초현실주의를 바탕으로 작품에 나타난 그들만의 해체 실현인 ‘열린 공간’ 개념을 이해하고 공간에 어떤 의미로 작용하여 표현되어지는지를 살펴보았다. ‘해체 이상의 해체’를 추구한 쿵 힘멜브라우의 건축은 기존의 전통적인 해체방식에서 벗어난 새로운 개념을 전개한 건축가이다. ‘열린 공간’의 개념은 그 하나의 의미로 작용하지 않고 여러 다른 조형적 요소와 사고, 과학의 패러다임, 주변과의 관계와 함께 그들의 작품을 형성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 그들의 건축 공간에서 ‘열린 공간’ 개념이 적용된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열린 공간’ 개념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공간의 개방성은 구조를 파괴하고 기존구조의 사고로부터 탈피한 3차원적 설계법으로 다층적 공간과 반 중력적 공간을 표현한다. 이에 재

료적 측면에서도 유리나 철을 사용하여 공간의 투명성을 제공하여 내, 외부가 하나의 맥락이 될 수 있도록 가시적 개방감을 부여하여 해체공간의 의미를 넘어서 ‘열린 공간’을 추구한다.

둘째, 쿵 힘멜브라우의 ‘열린 공간’ 개념은 무표정한 박스형태의 일률적인 기하학 체계를 벗어나 기하학의 파괴, 모서리 파괴, 폴드(Fold) 기법 등을 통해 공간의 위계성에 반발하고자 한다. 이는 공간에 직교체계를 탈피한 반중력적, 역동적인 비정형적 형태구성으로 공간의 영역은 구분 없이 혼성적 의미 즉, 건축 요소는 벽도 아니요 지붕도 아닌 새로운 의미로 해석하고자 하는 ‘열린 공간’의 철학이 내포되어 있다.

셋째, ‘열린 공간’을 표현하기 위해 해체주의 건축의 다원화와 복잡성에 대한 표현을 즉흥적인 플라쥬 기법을 통해 공간에 사용하고 있다. 단편적인 요소들이 결합되어 하나의 상을 형성하는 플라쥬 기법은 공간의 변화와 혼재적 구성을 통해 공간의 유희를 창출한다. 플라쥬적 방법의 생성과정은 개방적이고 의식적이지 않은 잠재적인 무의식의 세계를 표현하여 사용자에게 다양한 공간체험을 제공하는 것은 ‘열린 공간’의 설계특성이다.

앞에서 살펴 본 대로 쿵 힘멜브라우는 그들만의 공간개념으로 작품에 그들은 ‘해체 이상의 해체’적 세계를 펼쳐왔다. 그들의 ‘열린 공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앞으로 새로운 관점에서 다양한 형태를 창조했던 해체주의 건축가 쿵 힘멜브라우가 주장했던 ‘건축은 타올라야 한다.’는 말과 같이, 그들의 작품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건축과 실내디자인을 포함한 공간개념을 연구하는데 일조가 있어야 하겠다.

참고문헌

1. 피터 노에버, 뉴 모더니즘과 해체주의1, 청람 출판사, 1996
2. Peter Noever, Blue Universe, Coop Himmelblau, 2003
3. 월간 Space, Coop Himmelblau 작가편, 2002. 6.
4. 윤재은, 해체주의 건축의 외적 조형성과 내적 조형공간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실내디자인학회지, 24호
5. 윤재은, Deco, 근대성의 비판과 해체주의의 사고, 2003년 5월, p.166
6. 이종건, 해체주의 건축의 해체, 발언, 2000
7. 신현숙, 초현실주의, 동아출판사, 1992
8. 김은경, 해체주의적 공간 구성에 나타나는 플라쥬적 특성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논문, 2001
9. 이종무, 해체주의 건축의 형성배경과 성격에 관한 연구 - 디자인개념과 형태표현분석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1993년 2월, p.84
10. 자크 데리다, 다른곳, 동문선, 1997
11. Peter Noever, 건축의 종말, 미건사, 2000
12. 프레드릭 키슬러, 공간연출 디자인의 원류, 미술문화, 2000

<접수 : 2003. 7. 19>

12) 앓쌍 블라쥬(Assemblage)는 대중매체와 일상적인 물건이나 쓰레기 폐품들과 인쇄매체들이 오브제가 되어 3차원의 새로운 오브제 되는 개념이다. 오브제들의 크기와 형상, 재질감, 색채들과 관련을 가지며 방법에는 뜯기, 꿰매기, 톱질하기, 자르기, 용접 등이 있다.

13) 메르츠 플라쥬(Merz Collage)는 예술적 창조에 의해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워짐을 뜻한다. 예술의 본질 추구의 목적으로 디자인 과정에 있어 무한한 상상력과 다양성을 갖추고 모든 것이 재료가 되어 추상적 오브제로서 공간에 우연성을 표현하고 있다.